

LOGO

영상매체(영화와 사진)의 유아교육적 의미

- 이미지 인간학적 전제와 교육적 활용 가능성 -



정 영 근
(상명대학교 교육학과)





내용 목차

- I . INTRO: 이미지가 넘치는 시대
- II . V. FLUSSER와 ‘이미지 혁명’
- III . G. BOEHM: ‘도상적 전환(ICONIC TURN)’
- IV . H. BELTING: ‘이미지 인간학(BILD-ANTHROPOLOGIE)’
- V . 이미지와 지식교육
- VI . 이미지 혁명과 유아교육
- VII . 이미지 중심 교육의 한계





I. Intro: 이미지가 넘치는 시대

- 디지털/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
- 문자 중심 문화 → 이미지 중심 문화
- 교 육 학 : 시 각 역 량 (visual competence) 개발에 관심





II. V. Flusser와 ‘이미지 혁명’

- 선사시대: 신화/주술적 상상의 이미지
- 역사시대: 문자를 통한 서술 및 분석
- 디지털시대: 기계장치를 통한 기술적 이미지





III. G. Boehm: ‘도상적 전환 (iconic turn)’

1. **W. J. T Mitchell: ‘pictorial turn’(1992)**

- 1960년대 Rorty의 ‘언어적 전환 (linguistic turn)’ 에 대한 반성
- 언어나 이미지 모두 역사/사회적 상황에 따라 결정됨
- 이미지는 현실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중립적 매체가 아님
- 글과 이미지는 사실 세계를 재현하며 문화를 형성하는 기호
- 이미지의 역할과 의미를 개념화할 필요





2. G. Boehm: ‘도상적 전환(iconic turn)’(1994)

- 도상적 전환은 언어적 전환의 다음 단계
 - 그림은 이해될 수 있는 고유한 속성의 그 무엇
 - 도상적 차별성: 불확정성과 대비(contrast) 사이를 넘나들
 - 기호적 속성과 보여주는 기능을 지닌 그림이 기호에 억지로 편입되면 안 됨
- ※ 언어중심주의를 비판. 그림이 지닌 비유적 표현을 언어에 내재된 원리로 파악





3. ‘도상적 차별성(iconic difference)’

- 시각적 강점과 논리적 강점을 동시에 지님
- 실제적인 것을 능가하는 감각이 활용됨 → 언어를 뛰어넘는 지식 매개 가능
- 그림과 문자는 서로 경쟁하는 매체가 아니라, 각자의 우월성 및 문화지배력을 지닌 매체
- 그림은 언어(추론)적 맥락 안에서 의미를 생산





4. 도상적 전환과 교육학

- 그림은 언어와 연결되어야 비로소 서술 가능
- 공간 이미지인 그림을 보는 것은 결국 이를 언어로 연결하여 인식해내는 것
- 교육학은 텍스트 중심주의와 이미지 중심주의 사이에서 그 접점을 찾아야
- 텍스트에 근거하는 역사적 깊이(통시성) 및 영상에 내포된 담론의 폭(공시성)을 포괄해야





IV. H. Belting: ‘이미지 인간학 (Bild-Anthropologie)’

1. H. Belting: 인간과 이미지

- 이미지는 지각의 산물을 넘어서는 기능 수행
- 인간은 각각의 처한 상황을 이미지로 파악
- 인간의 표상능력이 이미지를 가능케 함
- 인간의 의식은 이미지를 매개로 기능함
- 이미지는 매체와 내용이 통합된 것으로 인간의 신체-정신적 본성을 반영





“이미지는 지각의 산물 이상의 것이다. 그림은 개별적이거나 집단적인 상징화의 결과로 생겨난다. 우리의 시선에 들어오거나 내면의 눈앞에 나타나는 것들은 이러한 상징화를 통해 이미지로 정제되거나 또는 이미지로 바뀌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지 개념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오로지 인간학적 개념 (ein anthropologischer Begriff)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미지와 더불어 살고 이미지 안에서 세상을 이해한다.”

(Bild-Anthropologie: 11)





2. 이미지 인간학

- 이미지는 현실을 가상적으로 대체하는 매체가 아님
- 이미지에서 읽어내야 하는 것은 인간 자신의 세계 연관성
- 매체를 통해 경험/지각하는 인간에게 이미지의 장소는 인간 자체 (신체)
- 인간의 신체가 이미지를 지각/표상하는 데 핵심적 연결점
- 신체는 시각적 세계 지각과 (정신에 의한) 이미지의 비유적 표출 사이의 접합점





3. 이미지 인간학과 최신 매체이론

- 매체이론은 사진/영화 같은 매체 자체의 특성에만 관심
 - 그러나 ‘이미지-매체-신체’ 는 서로 연결되어 있음
 - 이미지 매체의 기술적 확장에 의한 이미지의 위기로부터 인간의 위기 추론 가능
- ※ 자연과학이 인간의 신체를 인간상에서 제거함으로써
몸-이미지-인간 사이의 관계가 혼란에 빠짐





4. 이미지 인간학과 교육

- 이미지란 오로지 인간만 생산해낼 수 있는 인공물
- 이미지는 거울 속 영상/사진/초상화 등으로 실재하거나 또는 그렇지 않는 것. 이미지로 칭할 수 있는 대상의 폭이 넓음
- 재현해내는 이미지는 유사성 제시의 차원을 넘어 보는 이의 이해와 해석과 연계됨
- 외부세계 이미지는 교육적 기회 제공. 신체적 기억 속의 이미지는 우리의 시/공간적 삶이 경험과 연결됨을 보여줌





- 이미지 제작에는 의미 및 정체성 부여의 계기가 포함됨
- 자신에 대한 감각적 경험은 각자의 고유한 정체성 형성
 - ⇒ 예를 들어 사진 속 내 모습은 인화지가 아닌 그 위에 나타나는 이미지로서 사물인 동시에 사물이 아님
 - ⇒ 이는 가상의 이미지가 아니라 나 자신을 세계와 연결하는 고유한 표상
 - ⇒ 도상적 차별성으로 인해 실제 지각 가능한 것을 뛰어넘는 내용이 매개됨





V. 이미지와 지식교육

1. E. Pöppel과 지식의 종류

- **형식지(explizites Wissen):** 개념정의를 통해 확정되고 논의될 수 있는 내용으로 형상화된 지식. 언어로 명확하게 파악됨
- **암묵지(implizites Wissen):** 학습과 체험을 통해 개인에게 습득된 상태의 지식으로 대개는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움
- **그림지(bildliches Wissen):** 명제로 표시되는 의식/실천행위가 아니라 이미지와 연관되며 개인의 인격적 판단에 따르는 특성을 지닌 지식





※ 형식지 만 있다면 삶의 생동성이 결여될 것이고,
암묵지 만 있다면 배움의 목표를 설정하기 어려울 것
이며, 그림지 만 있다면 지식의 내용 구속력이 사라
진다.





2. 그림지의 속성

- **회상지**(Erinnerungswissen; 回想知): 이미지 인간학의 차원에서 살펴본 사진의 경우처럼 우리들 삶의 역사를 기록한 영상에 근거하는 자기동일성에 대한 지식으로 주체인 “나”와 밀접히 연관됨
- **직관지**(Anschauungswissen; 直觀知): 직관지는 감각적 지각이 언제나 “나”의 지각이라는 점에서 주체와 연관됨
- **추상화 하는 지식**(abstrahierendes Wissen): 나와 거리감이 있는 어떤 사물이나 사건에 대한 대상적 이미지이거나 또는 그 속으로 내가 들어가기도 하는 이미지성 지식 (나 자신과의 연관성이 멀거나 또는 밀접할 수 있음.)





3. 그림지의 교육학적 의미

- 인간 주체와 연결되어 인격적 성장 도모
- M. Polanyi가 언급하는 ‘tacit knowledge’ 처럼 의미가

미리 규정되지 않아 다양한 관점의 이해를 가능케 함

- 이미지-상상력-인식의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심미적/인격적 지식교육의 차원을 열어줌





VI. 이미지 혁명과 유아교육

1. 시각적인 것(Visuelles)과 지식(Wissen)의 어원: **videre**

- 시각적 지각은 광학적 법칙에 따르는 행위가 아니라, 사회/문화 및 매체에 맞게 조정된 행위 과정
- 아동들은 논리적 인지구조 이전의 경험을 통해 세계를 인식하기 때문에 이미지가 매우 중요
 - ⇒ 아동의 지식구성은 합리적 의식의 논리에만 의존하지 않음.
실 행하는 육체의 지향성, 즉 운동 감각들의 통합에 의함
 - ⇒ 아동이 신체-감각적으로 보고 듣고 느끼며 체험하는 것 중요





■ 오늘날 교육학에서 시각화는 지식의 생산뿐만 아니라 전수 및 발표에 활발히 사용됨

- ⇒ J.A. Comenius의 <세계도회 (*Orbis sensualium pictus*)>는 신이 창조하신 세계를 어린이 수준에서 그림과 글을 통해 잘 파악할 수 있게 제시
- ⇒ 이후 교육학에서 인간의 시각에 근거한 교육방법을 “직관” 교육이라 총칭
- ⇒ 계몽주의 이후 언어기호를 통해 배우고 전수되는 합리적 세계관의 확산과정에서 그림은 교육적 촉매 수단으로 종속적 기능을 수행
- ⇒ 지난 세기 말부터 유아용 교재에서 대학의 강의에 이르기까지 시각을 매개로 하는 디지털 학습매체와 이미지들이 전 세계적으로 폭넓게 유통됨





- D. Buckingham은 아동들이 어려서부터 전자매체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미디어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새로운 문화교육의 필요성 주장

그러나 이러한 주장의 인식/존재론적 근거인 영상과 인간 사이의 관계규정에 대한 고민과 논의는 찾아보기 어려움. 그림에 대한 기호학적 이해 또는 Flusser의 인류 문명사에 대한 미디어 철학적 비판에서 볼 때, 이처럼 영상이 범람하는 현상은 문자 코드에 익숙하며 그것에 의존하려는 현대인들 또한 결코 종결될 수 없는 ‘개념과 그림 사이의 변증법’ 한가운데 처해있음을 보여줌





2. 이미지의 특성과 유아

- **구체성:** 추상적 개념에 비해 소재/감각적 경험, 모방 가능성, 개별성 → 아동의 감각 및 모방능력
- **공간성:** 이미지 지각은 언어적 개념 이해보다 빠르며 오래됨. 시각적 지각은 불가피하게 공간을 직접 조직. 특정 언어에 구속되지 않고 전 지구적 소통 → 언어 < 감각
- **정서/감정:** 이미지 수용은 감정과 연결됨. 정서와 감정은 대상의
심미적 끌림이나 반감에서 나옴 → 감성/정서 교육
- **의미 개방성:** 이미지는 언어 개념과 달리 다의미적이며 다양성을 지님 → 상상력과 개성 발현





3. 이미지 인간학의 유아교육적 의미

- 이미지가 머무는 곳은 인간 자체: 유아의 삶은 이미지에서 시작/활동됨
- 유아기와 유아의 삶은 이미지를 생동적으로 수용/해석하는 시기이며 공간
- 이미지를 모방하는 유아는 개념적 차원이 아닌 신체적 차원에서 모방
- 이미지는 다른 사람들과 연관관계를 맺도록 하며 낯선 것에 대한 경험을 가능케 함으로써 유아의 삶과 교육에 기여





VII. 이미지 중심 교육의 한계

- ‘iconic turn’의 시대라고 해서 이미지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은 아님
 - ⇒ 이미지에 일방적으로 의존할 경우 시장이 보여주는 세계로 무작정 끌려감
 - ⇒ 수업을 지원하는 수단을 넘어 교육인간학적 조건과 가능성을 고려해야
 - ⇒ 이미지와 영상의 중독성을 비판적으로 주시하며 이미지를 능동적으로 활용해야
- 문자 텍스트는 여전히 중요. 이미지와 문자의 혼합과정 주목해야
- 어린 시절 이미지 지각은 사고/판단하는 오성/이성과 결합되어야





Thank You!

